

불황 장기화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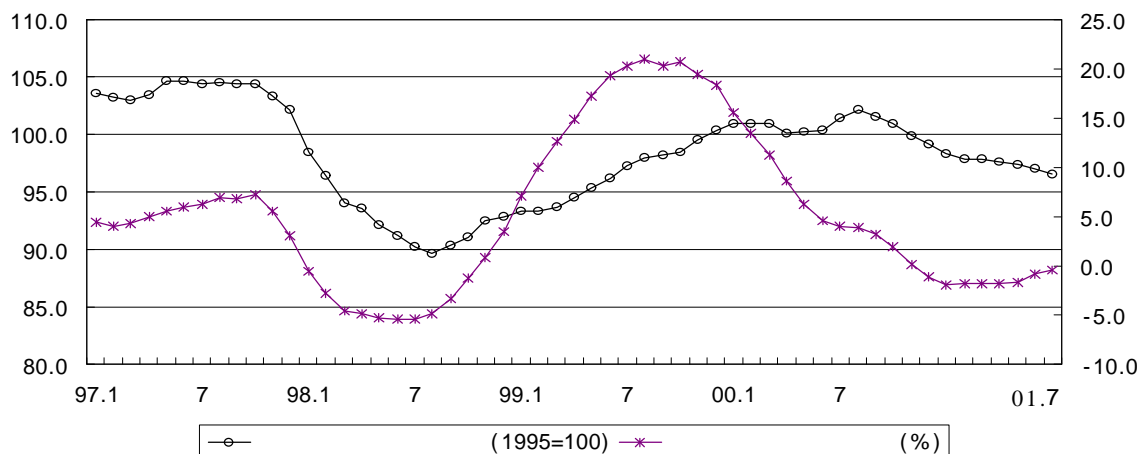
산업 활동

- (실물 경제 지표 둔화 지속) 7월 중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하고 도소매 판매도 둔화 추세를 보임

- (생산 및 출하) 반도체, 컴퓨터,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인해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.9% 감소하고, 출하는 수출 출하가 11.2% 감소, 내수 출하도 1.5%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.0% 감소함. 이에 따라 평균 가동률도 71.0으로 전월 대비 3.1%p 하락함
- (도소매 판매) 도매업과 소매업은 각각 3.6%, 3.1% 상승하였으나,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2.5% 상승에 그치면서, 5월 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음
- (설비투자) 컴퓨터, 자동차 등이 투자 부진으로 10.3% 감소하여 올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함

- 국내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어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임

-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6.5로 전월(97.0)에 비해 0.5포인트 감소하고, 향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-0.4%로 전월에 비해 0.5%p 상승함
- 실물 경기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, 불황의 장기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



대외 거래

- 8월 수출은 119.2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19.4% 감소하였으나, 7월(114.9억 달러)보다 4.3억 달러가 증가하였고 감소세도 둔화됨으로써 향후 수출은 7월과 8월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기대됨

· 8월 수출은 2000년 8월의 수출 호조(전년 동월비 30.1%)에 따른 상대적 부진이 나타난 가운데, 반도체·컴퓨터(전년 동월비 -21억 달러) 및 석유제품(전년 동월비 -2.2억 달러)의 수출 감소가 주된 원인임

- 8월중 수입은 114.2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15.1% 감소함

· 자본재 수입(8.1~20일, -26.3%)은 큰 폭으로 감소, 그러나 원자재(-4.4%)는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, 소비재는 증가세(3.1%) 지속

· 자본재의 경우 수출 부진·설비 투자 위축으로 부품 및 시설재 수입 감소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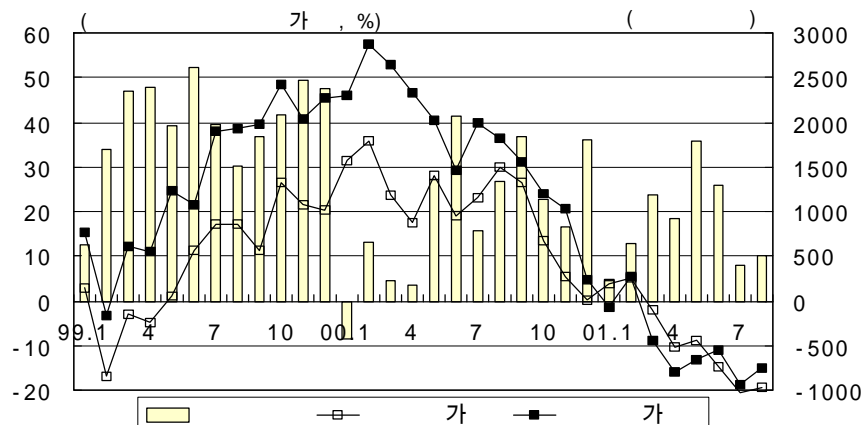
· 원자재의 경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둔화로 감소

- 8월 무역수지는 5.0억 달러 흑자 기록, 8월말까지 누계 흑자는 69.4억 달러 기록(전년 동기비 7.7억 달러 흑자 확대)

· 무역수지는 2000년 2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 시현

· 향후 수출의 점진적 회복 및 유가 소폭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안정세가 전망됨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 유지 전망

<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>



물가

- (동향) 8월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전월의 5.0%에서 4.7%로 둔화되었으나 전월 대비로는 0.2%에서 0.5%로 높아짐
 - 1~8월 기간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 4.8%, 전년말 대비로는 3.5%의 상승률을 기록
 - 생활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5.5% 5.0%로 전월에 이어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지만 전월 대비로는 0.6%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
 -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보험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산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2.7%에서 2.0%로 둔화되었고 전월 대비 0.4% 하락함
- (전망)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에 비해 둔화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여전히 물가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음
 - 공업제품 가격과 공공요금의 안정화, 물가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가공단계별 중간재와 자본재의 가격 상승률 둔화 등 물가 안정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음
 - 그러나 상반기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었을 뿐 절대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으며, 7월말에 배럴당 26.6 달러였던 국제유가(WTI 기준)가 8월말에는 27.2 달러로 점진적인 오름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물가 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음

<주요 물가지수 추이(1995=100)>

